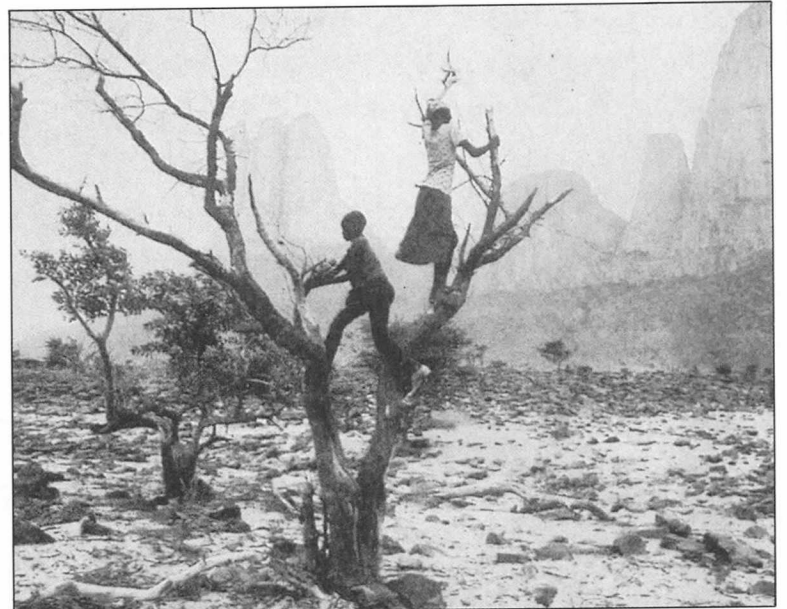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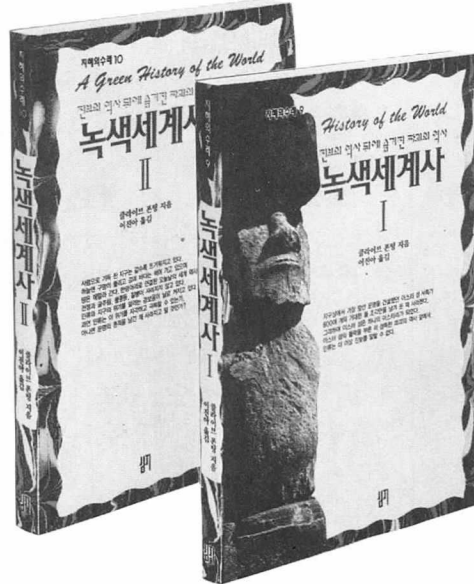


# 지구환경의 역사에 대한 '녹색' 경고

클라이브 폰팅 지음 《녹색 세계사》

인간은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역사는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 좌우된다. 인간의 역사는 곧 인간이 생태계의 제한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 결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의 역사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자연과파괴의 역사다.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세계사》(이진아 옮김)는 세계 역사를 '생태학적' 시각으로 해석, 오늘의 환경문제가 수천만년 동안 변화해온 인류 삶의 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인류의 역사를 '녹색'의 시각으로 꿰뚫어본 이 책은 전지구적 환경위기 속에 우리들의 반환경적 삶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화석연료를 구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숲을 파괴하자 숲은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했다.

## 환경파괴는 인류문명의 종말

저자는 먼저 이스터섬의 예를 들어 환경 파괴가 인류문명에 갑작스런 종말을 가져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섬에서 발견된 수백개의 거대한 석상들은 섬 전체의 삼림벌채와 환경파괴의 결과임을 저자는 교훈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환경파괴 역사는 인간의 생활양식의 발달에서부터 시작된다. 약 200만년 동안 인간은 수렵과 채취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러다 약 1만년전 농업이 처음 등장했다. 농업은 곡식을 재배하고 동물을 키울 초지를 마련하기 위해 자연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양식이다. 집약적인 식량 생산으로 사회는 조직화되고,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환경을 파괴하는 농업양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생산 효율을 올리지만 곧 생산력이 떨어져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벌어진다.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중국문명, 로마와 마야문명 등이 급격히 몰락하거나 주변 지역마저 황폐화시킨 후 자멸했던 역사의 예가 그것을 증명한다. 농업의 발달은 인류 문명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붕괴를 촉진한 원인이기도 했다. 농업이 부채질한 인구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기아와 만성영양실조, 악성전염병의 위험을 낳았다. 중국과 남아메리카는 물론, 유럽인들도 끔찍한 대규모 기근에 시달렸다. 한정된 양의 곡물에 의존하자 흉작의 가능성은 높아졌고, 사회빈곤층은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됐다. 14~15세기의 민중폭동은 식량공급에 대한 불만이

인간의 역사는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 좌우된다.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세계사》는 세계 역사를 '생태학적' 시각으로 해석한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오늘의 환경문제가 수천만년 동안 변화해온 인류 삶의 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 우리들의 반환경적 삶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터져나온 것이다. 유럽이 지나간 생존투쟁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식민지 확대로 세계 자원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다.

유럽인들의 식민지 확대가 원주민들과 그 사회에 끼친 환경파괴의 영향은 치명적이었다. 식민지 원주민의 기존 사회질서 붕괴는 물론 세계경제 질서까지 재편됐다. 유럽의 나머지 사회는 유럽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천연자원의 거대한 창고가 됐다. 유럽팽창은 곧 유럽적인 사고방식의 전세계 지배를 의미했다. 인간이 자연을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유럽적 세계관은 자연과파괴의 역사를 정당화시켜준 셈이다.

결과적으로 환경파괴의 속도가 빨라졌다. 500년전까지 흔히 발견됐던 늑대가 유럽에서 사라졌고, 모피의 유행으로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의 야생동물들이 수난을 당

했다. 현재 2만5천종의 식물과 1천종의 조류, 700종의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열대삼림에서는 약 50종의 동식물이 매일 사라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열강의 경제제국주의로 제3세계 국가는 여전히 식민상태에 놓여 있다. 유럽과 미국 사람들 식단의 사치를 위한 설탕, 커피, 차, 코코아, 바나나와 이들 국가의 공장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화, 고무, 야자유가 제3세계에서 재배됐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발달은 그들의 토지와 삼림을 황폐화시켰다.

현대적인 농업방식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여살릴 수 있게 됐지만 불평등한 분배와 환경파괴의 부작용을 낳았다. 공업적인 식품생산으로 과일과 채소를 본고장이 아닌 곳에서 맛볼 수 있게 됐다. 가공업은 식품에 이물질들을 섞거나 질나쁜 산물을 고품질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요즘은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식품에 첨가물을 섞는다. 첨가물의 90%가량이 인위적인 맛과 모양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며, 이들 중 다수가 유독성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다.

## 국가차원을 넘어선 지구 오염문제

엄청난 인구의 증가는 화석연료와 동력원 등의 에너지 문제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너지를 무궁무진한 듯이 써버렸다. 이제 남아 있는 화석연료 매장량이 언제 고갈될지 추정하기조차 어렵다. 석유와 천연가

스의 경우 100년, 아니 수십년 정도면 바닥 날 것으로 내다본다.

화석연료의 이용과 공업화 확대에 따라 도시가 성장했다.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 등지에 탄광지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도시가 등장했고, 교통수단 발달에 힘입어 거대도시가 출현했다. 도시는 환경문제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대기오염, 차량문제, 거대 공동주택단지의 열악한 생활환경, 소음 공해와 사회문제 등이 그것이다.

쓰레기 문제 또한 인간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수천년 동안 위생시설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었지만 광범위한 공업생산물과 새로운 기술 이용은 새로운 오염원을 계속 들여와 새로운 위험을 던졌다. 이제 오염은 국가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것이 됐다.

20세기말 오염은 미증유의 규모로 확산돼 지구 전체를 뒤덮었다. 환경에 공해물질을 쏟아부으면서도 쓰레기 방출과 폐기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늘 뒤쳐졌다. 도시에 악취가 떠돌고, 강은 새카맣고 끈적거리는 웅덩이가 됐으며, 공기는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다. 산성비로 식물들은 말라간다. 전세계 생태계는 이미 여러 유형의 오염으로 손상됐다. 온실효과와 가스배출은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물질 중 가장 광범위한 위험을 끼칠 것이다. 1만년간의 정착생활과 200년의 공업화기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물질은 세계의 기후체계를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몰고갈지 모른다. —김지연 기자

심지/A5신/각 300면 내외/각 7500원